

가족주의와 현실역동상담의 일체적 관점*

장 성 숙[†]

가톨릭대학교

한국문화의 특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교의 영향에 의해 강화된 가족주의이다. 이것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와 만나면서 많은 혼란을 맞이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서구화가 되었어도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전통적 가족주의적 가치가 유지되고 있어 우리사회에는 가족간의 갈등이 많다. 여러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는 우리문화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을 중시하는 서구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가족문화 정립에 초석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라는 개인과 ‘우리’라는 가족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일체적 또는 원융적(圓融的) 관점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런 일체적 관점이 한국적 상담모형으로 제안된 현실역동상담의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봤다.

주요어 : 가족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의식, 일체적 관점, 현실역동상담

* 본 연구는 200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의 지원에 의함

† 교신저자 : 장성숙,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Tel : 02-2168-2891, E-mail : changss312@hanmail.net

주로 인간관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상담분야에서는 내담자의 성장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어떤 가족관계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성격의 상당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토양인 가족제도나 가족관계는 문화의 요체임과 동시에, 한 집단의 생활양식과 가시적인 물질문화를 이해하는 첨경이 된다(한성열, 2005).

한국문화의 주된 특성으로는 가족주의, 서열(권위)주의, 연고주의, 현세주의, 온정주의 등이 거론되고 있다(최상진, 2000). 이 중에서 한국인의 문화적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족주의를 한국문화의 핵심으로 삼는 것은 유교적 이념이 강했던 우리나라에서 가족을 사회질서의 출발점인 동시에 바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최홍기, 2006). 가족을 근간으로 가부장제적 가족의 실현이 이룩되었고, 가족을 최소의 내집단으로 삼으며 외집단과 구별을 두었고, 혈연을 바탕으로 한 끈끈한 정을 확대시켜갔다. 따라서 한국인의 특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그리고 이것은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인의 정서를 잘 해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족주의가 어떠한 배경에서 발달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서구의 개인주의와 만나면서 어떠한 진통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단기간 내에 초고속으로 경제성장을 이루한 나라로서 오늘날 세대, 남녀, 계층 간에 빛어지는 여러 유형의 갈등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가족주의적 가치가 서양의 개인주의적 가치와 충돌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 어떤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립하는 이 두 가치체계를 포용하는 일체적 관점을 제안하고, 그것이 한국적 상담모형으로 제안한 바 있는 현실역동상담에서 가족 내의 여러 갈등들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의 가족주의 발달과 현황

우리문화의 주된 특성을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생활의 다방면에 그 것의 특성이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족주의는 가치의 중점을 개인보다 가족전체에 두려는 태도이고, 또 가족적 인간관계를 사회적 영역에까지 확대하거나 적용하려는 태도이다.

일찍이 우리민족은 조상을 섬기는 토속신앙 위에 체계적 틀을 갖춘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가족유대를 강화시켰다. 유교의 기본 정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원리와 구체적인 윤리규범인 다섯 가지로 구성된 삼강오륜(三綱五倫)에 있다.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 군위신강(君爲臣綱)이라는 삼강(三綱)을 근간으로 하면서 생활의 지침이 되어온 부자유친, 부부유별, 군신유의, 장유유서, 봉우유신은 다름 아닌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전 국민의 양반지향화가 이루어지고 난 조선후기부터는 가부장적 부부관계, 수직적 인간관계, 장유유서의 연공서열, 체면치례와 허례허식, 문관에 대한 선호와 학구열 등과 같은 현상들이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이동희, 1999). 조선시대 후기부터 근대까지

지속된 사회불안 속에서 문중중심의 가족형태는 점차 직계가족 형태로 변화되었다. 요컨대 일제 강점기나 한국전쟁과 같은 악화된 사회 및 경제 상황에서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 친척이라기보다 오로지 일차적인 핏줄 밖에 없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생존단위로서의 가족은 직계가족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함인희, 2001). 이러한 사고방식은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또 다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도시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에 의해 서양의 개인주의가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관의 변동이 크고 빨라서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가 큰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Inglehart, 1997). 그리하여 우리의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새로 유입된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충돌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혼란기를 맞고 있다. 노년층은 가족성원 간의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삶의 방식에 익숙해 있고, 중장년층은 개발도상국가 시절에 경험한 서구문화가 지닌 우월성의 영향으로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이성용, 2006; Caldwell, 1982). 그리고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가족성원 간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서구식 가족 삶의 방식에 매우 익숙해 있다.

근자에 이르러 가족에 관련한 변화 중에서 가장 주된 것을 꼽는다면 무엇보다 가정의 중심축이 부자(父子) 중심의 관계에서 부부(夫婦) 중심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안호용, 2001, 최홍기, 2006).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는 낮은 결혼율과 높은 이혼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중요했던 남아선호 사상도 과거보다 상당히 약화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심각할

정도로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1997년 경제 위기 이후에는 ‘가족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가족변화를 겪고 있다(은기수, 2006).

그러나 서구사회의 가치나 삶의 방식이 많이 유입되었어도 한국인의 생활 속에는 여전히 가족주의적 습속이 다양한 문화형태로 남아있다. 명절에 고향을 찾기 위한 민족의 대이동이라든가, 자녀교육을 위해 헌신한다든가, 친인척의 행사에 깊이 관여한다든가, 결혼 후에도 부모의 영향권에 놓여있다든가, 가족구성원의 출세나 낙오를 자신의 체면과 관련시키는 것 등은 여전히 우리의 생활양상이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 핵가족 문화 자체도 한국사회에 유입되어서는 그 속성이 변질되어 나타난다. 한국의 핵가족화는 서구의 핵가족처럼 개인의 사적영역이 아니고, 기능적 차원의 ‘안식처’로서 대다수의 부부들이 역할분담에 의한 상호의존성을 받아들인다(김은희, 1995; 이재경, 1999). 즉 남편들은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간주되며 여자들은 가족이 재충전할 수 있는 가정을 보살피는 안주인으로 인식되는 편이다.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서양에서처럼 아이를 독립적인 개체로 여기며 자주성을 키우는데 비중을 두기보다는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장차 집안을 대표하게 될 성원으로 파악한다. 그리하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가족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켜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지니도록 한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부부중심의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어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자녀중심의 생활 속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가족문화를 이해하려면 이념적으로 핵가족의 가치를 지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혈연중심의 직계가족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고, 부부중심의 결

혼관을 따르면서도 배우자의 애정적 역할보다는 성역할에 근거한 부부관계 및 자녀교육에 우선적인 비중을 두는 가치관의 혼재 양상을 잘 인식해야만 한다.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문화의 갈등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어느 사회든 개인보다 가족을 우위에 두었으며, 사상이나 제도 역시 동, 서양 모두가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었다(이승환, 2004). 그러나 일찍이 산업화를 이루었던 서구사회는 소득의 증대에 따라 자유로운 자기주장과 생활이 가능해지자 개인주의적 문화특징을 앞서 발달시켰다(Hofstede, 1991).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와 함께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이 ‘나’를 강하게 의식하면서 서구적 개인주의의 가치에 익숙해 가고 있다(이현지, 2005). 그러면서 기존의 전통주의적 가치관과 새로운 자유주의적 가치관은 불가피하게 충돌하고 있다. 유학의 가르침을 이상으로 삼아왔던 우리 사회에서는 위계에 따른 권위를 인정하며 양보, 겸손, 헌신과 같은 행위규범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어온 반면, 서양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자유 민주주의와 결부되어 하느님이라는 절대자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평등사상을 발달시켰다. 그리하여 서열을 강조하는 우리사회의 가치관은 절대자 외에 모두가 대등하다는 서구의 자유주의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어디에서든 문화교류가 일어나면 충돌하고 혼합하며 마침내 융합되는 수순을 거치게 마련이지만, 급격한 변화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에서는 그 양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격렬하고 복잡하다. 상담의 실제 상황에서 접하는 가족간의 갈등들을 유목화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결속과 독립에 대한 갈등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겨 지나치게 과보호나 관여를 하는 반면, 젊은이들은 이러한 부모의 태도에 반발을 느끼고 부모들의 간섭으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한다.

둘째, 조상을 섬기는 제례의식에 대한 갈등이다. 부모 세대에서는 제사나 차례가 무엇보다 중요한 행사지만 개인주의적 자유사상을 받아들인 젊은이들은 그런 것들을 형식으로 여기며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갈등이다. 결혼을 낭만적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젊은이들은 독자적인 생활을 꿈꾸며 노부모와 거주하기를 기피하는 반면, 부모들은 그러한 태도를 배척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넷째, 이혼의 급증에 따른 가정해체 문제들이다. 이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신세대에서는 이혼을 감행해 편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방황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섯째, 저 출산에 대한 시부모와 젊은 부부 간의 마찰이다. 남아선호 사상을 가진 부모 세대에서는 대를 잇고자 가급적 많은 출산을 바라지만, 젊은이들은 적은 출산이나 아예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여섯째, 자녀의 양육문제에 따른 어려움이다. 맞벌이를 하는 핵가족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친가나 처가 부모의 도움을 받는데, 이때 양가 집안 사이에 친밀도에 대한 미묘한 갈등이

생겨나곤 한다.

일곱째, 남녀 성차별에 대한 갈등이다. 재산 분배나 유산상속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외도와 같은 실책에 대하여서도 아직도 우리사회는 남자들 본위로 움직여가고 있어 불평등에 대한 갈등이 깊다.

조화를 이루는 가족문화의 정립

그동안 많은 학자들은 가족에 대한 의무가 가족 성원들 사이에 심각할 정도로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족주의를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폐단 중의 하나로 지목하고, 이것이 한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원천이라고 비판했다. 즉 그들은 개인의 희생이 강요되었다는 점과 가족이라는 미명아래 사회의 공공질서나 원칙이 마구 짓밟혀졌다는 점에서 가족주의를 비판했다(권명아, 2000).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전통적 가족주의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가족문화에도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주이나 무관심이 빚어내는 소외감과 같은 불건전한 요소가 있듯이, 우리의 가족주의에도 질서를 무너트리는 공사의 혼동이나 인권유린과 같은 불건전한 요소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가 지난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에게 크게 열린 자아의식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공동체 의식으로서의 협동, 치열한 경쟁이 아닌 따듯한 여유로움, 타인에 대한 배려, 사람들에 대한 끈끈한 인정 등 개인으로서의 ‘나’라는 테두리를 넘어 공동체적 ‘우리’로 용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의 가

족주의가 지니고 있다(김태길, 2002).

서구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율적인 개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사회생활을 하기로 계약하였다는 시각 아래 형식이나 굴레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자 한다. 서구사회의 이런 추세는 오히려 가정을 위협해 갖가지 유형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사람들은 그것을 타파하고자 동양사회의 결속력이 강한 가족관을 본받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을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사회라는 통체의 부분적 존재라고 보는 생각이 지배적이다(최봉영, 1998). 이러한 사조 아래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공동체적 의식 또는 공동체적 윤리를 발달시켰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엔가 도움을 청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된다. 그리하여 가족주의가 현대사회의 삭막함을 이기게 해주는 울타리로 기능한다면 그것은 분명 재평가를 받을 만하다. 유교전통의 핵심이었던 가족주의가 실은 자녀교육과 같은 열기로 한국의 근대화를 이룬 원동력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최영진, 2005).

새로운 가족문화의 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를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 관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강한 개인적 자의식을 살리는 것이 곧 확고한 공동체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의 삶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은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다(이현지, 2005). 이들은 서로를 지탱시켜주고 보안해주는 상보적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전통적 가족주의와 서구의 자유적 개인주의를 대립시켜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점이 될 수 있는 특성을 살려 가족문화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가족집단을 위하는 것이고, 동시에 가족에게 유익한 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방식의 일체적 또는 원융적(圓融的) 관점이 그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관점이야말로 우리사회가 당면한 수많은 갈등을 극복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본다. 같은 뒷줄을 나눈 사람들로서 남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전체성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개인주의의 장점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은 청소년들도 열악한 입시과정을 견디는 이유가 다름 아닌 어머니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3). 이렇게 연결고리가 싶은 한국인으로서는 가족에 대하여 확고한 공동체적 의식을 가진 사람이 강한 개인적 자아의식을 갖는다는 사실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일이 아니며 심리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이동희, 1999).

현실역동상담의 특성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일차 집단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며, 자신을 가족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인간관계의 유지를 우선시 하고, 집단의 가치기준을 자신의 가치기준보다 소중히 하는 문화를 발달시켰다(한규석, 2002). 특히 우리사회는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상황적인 맥락에 따른 자아를 중시한다. 더구나 한국인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행동규범으로 죄책감보다는 주

위 사람들의 평가를 중시하는 체면을 기준으로 삼는다든가(최상진, 최인재, 김기범, 1999),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친밀하고 결속력이 강해 효도가 중요한 사회규범으로 작용한다든가(최상진, 2000), 언어적 표현보다 눈치를 통한 고맥락적 의사소통을 발달시켰다든가(최상진, 진승범, 1995) 하는 특성들이 있다.

이런 문화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삶을 영위하는 우리의 현실은 매우 역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담할 때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정서적으로 얼마나 독립적인가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개성과 권익을 우선시하는 서양의 가치기준을 적용한다면 때때는 도움을 주기보다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담이론 및 접근들은 서구 문화권에서 개발된 것들로 그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형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해왔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고자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정서에 부합되는 한국적 상담모형으로 필자는 현실역동상담을 제안한 바 있다(장성숙, 2000).

현실역동상담에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유수한 상담이론들 속에 내포된 문화보편적인 요소들은 적극 받아들이되, 그 이론들 속에 반영되어 있는 서구인들의 문화특수적인 가치들은 제거하고 그 자리에 우리의 문화특수적인 요소들을 반영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에서의 인간관은 사람을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파악한다. 사람은 군집성을 지닌 존재로 관계 속에서 살게 마련이고,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집단을 근간으로 주위 사람들을 가족의 확대개념으로 지각하려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이 접근에서는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복합적인 측면을 살피기 때문에 현실역동상담에서는 특정 요소 하나를 강조한다기보다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 어느 것이든 다루는 통합적인 방법을 취한다(장성숙, 2000). 즉 지정의(知情意) 중 어떤 요소든 내담자를 깨어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때마다 강조점을 달리 해 접근한다. 그리고 현실역동상담 접근에서 추구하는 상담의 목적은 무엇보다 현실에의 적응으로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며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자신감을 갖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공존의 방식을 터득해 원만한 적응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현실역동상담 접근모형이 기준의 다른 접근들에 비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첫째, 현실역동상담에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할 때 내담자의 말을 내담자가 처한 전체적 맥락과 상황을 고려 하며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사회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도움을 청하러 온 상태에서도 좀처럼 자기나 가족의 치부에 대하여서는 함구하려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 책임을 면하려 하는 이들이 상당히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필히 그 사회의 보편적 상식을 통해 무엇이 생략되고 또 어떻게 각색되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현실역동상담에서는 개인의 심리내적 세계만이 아니라 외적인 현실세계에 대하여서도 적극 다루고자 한다. 외부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적응이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관계주의적인 우리사회의 특성상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대부분의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파생하는 것들로 그 배경에는 상황적인 조건이 있게 마련이다.

셋째, 현실역동상담에서는 내담자의 개인적인 ‘자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돋는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둔다(장성숙, 2004). 우리사회는 유교적 가치를 생활의 행동규범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리에 따른 구실을 매우 중시하는 편이다. 즉 자신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대접받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사회에서는 의무나 역할이 강조된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닌 부적응의 원인이 자기역할의 미비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피고, 가급적 그 역할을 내담자 자신이 먼저 수행하도록 촉구한다.

넷째, 현실역동상담에서는 상담자가 치료자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부모나 스승과 같은 양육자 내지는 교육자와 같은 역할도 해야 한다고 여긴다(장성숙, 2002). 전통적으로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내담자들이 상담자를 자기와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기보다 경험이 많은 윗사람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상담자를 어른으로 여기고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조언이나 지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를 공감해주는 것 이상으로 조언이나 지침을 마련해주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실역동상담에서는 내담자가 깨어나게끔 가능한 한 직면을 많이 시도한다(장성숙, 2004). 일반적으로 내담자들은 힘든 상황을 호소하면서도 자신의 패턴에 익숙한 나머지 변화에 대해 경직성을 보인다. 내담자가 스스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자칫 실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

요되기 때문에 내담자가 감당할 만한 힘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감당할 만한 다양한 종류의 직면을 시도해 단기간 내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성을 띤다.

여섯째, 현실역동상담에서는 상담자가 어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머니처럼 공감과 이해를 해주는 수용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준엄한 아버지같이 직언을 아끼지 않는 엄부자모(嚴父慈母)와 같은 모습을 취할 때가 있다. 즉 내담자가 자신의 이득에 부합되지 않게 엉뚱한 방향으로 고집을 피울 때는 고집의 배경인 분노를 잘 풀어주어야 하지만, 다급한 상황에서는 호되게 야단을 쳐서라도 내담자가 현실상황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현실역동상담에서는 가능하다면 내담자에게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인에게 부모라는 대상은 거의 종교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부모상을 복원시켜주는 것은 내담자를 든든한 배경을 단기간 내에 마련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여덟째, 현실역동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사회성을 익히도록 가급적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전진하도록 상담자가 부단하게 밀어준다. 삶이란 곧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피하고서는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수행하려면 상담자의 역량이 그 어떤 상담접근에서보다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적 상담 모형으로 제기된 현실역동상담에서의 제일 큰 관건은 상담자에 대한 양성문제이긴 하다. 그 만큼 어른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상담자로 성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

내담자들이 그런 상담자상을 원한다면 도와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현실역동상담의 실제

상담상황에서 개인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가족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이분법적인 질문은 상담자의 온정적인 공감반응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예민한 관찰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묻는 것과 같은 식의 관점이다. 공감과 관찰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면 상담이 안 되듯이 개인은 가족이라는 집단에 의해 받쳐지고, 가족은 개인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만약 상담자가 개인과 가족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일체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한다면, 내담자에게 희생이나 양보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삭막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우리의 가족주의적 가치와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일체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사례

한 중년 남자가 고민하는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아버지에 대한 부양 문제였다. 일찍이 아버지는 처자식을 버리고 다른 여인과 살림을 차려 그 여자의 자녀들만 돌봤다고 한다. 그리하여 자기 어머니는 시장바닥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림을 꾸렸는데 호강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친척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거의 노숙자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

다. 아버지와 같이 살던 여자도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녀의 자식들은 결혼을 하자 양부였던 아버지를 거두지 않아 이미 노쇠해버린 아버지는 형편없이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처자식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던 아버지에게 원한이 많은 이 남자는 분노가 가득 차있는 상태에서 상담자를 찾아왔다. 상담자는 이 남자에게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살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내담자가 친척의 이야기를 듣고 왜 그토록 고민하게 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그 남자가 고민했던 실체는 아버지가 비록 자기 구실을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자신의 혈육 즉, 아버지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남이 아닌 아버지가 그렇게 남루하게 지내는 것이 대외적으로 창피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는 상담에서 어머니를 비롯한 식구들이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지를 말하면서 결국, 아버지를 인간적으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나 대외적으로나 당당해지기 위해 아버지를 돌보기로 했다.

사례에 대한 해설

이 사례는 자기 구실을 다하지 못한 아버지의 부양에 관한 문제다. 첨과 살림을 차리면서 본처와 자식들을 유기한 아버지에 대해 분노를 지닌 내담자는 상담자를 찾아와 난감한 심경을 토로했다. 아마 서구의 상담접근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내담자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면서 장시간에 걸쳐 공감을 통해 정화시켜내는 작업에 역점을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역동상담을 시도하는 필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아버지를 그래도 도리 상 보살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와시해도 되는

것인지를 점검받기 위해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파악했다.

상담자는 우선적으로 그가 고민하는 실체 즉,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게 처신을 한 경우에도 혈육에 대한 도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를 않고, 또 다른 아버지가 남루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남들이 알면 흥을 보지 않겠는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했다. 그리하여 상담자가 일러주기를, 내담자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자체가 해답이 아니겠느냐며 이제 와서 힘들게 아버지를 용서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굳이 따질 것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 편 할 것 같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돋는 것이 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동시에 아버지도 살리는 길인 것 같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자 내담자는 납득을 하였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생활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여 내담자는 아버지를 위해 자기가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화난 마음 때문에 아버지를 쳐버린 것도 아닌 일체적 관점의 상담효과 즉, 단 시간 내에 내담자 자신도 살고 가족인 아버지도 살리는 방도를 찾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이 사례에 나타나듯이 한국인에게는 뼈 속 깊이 내재된 혈연의식이 있어 아버지와의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규범의식이고 또 그것이 한국인의 가치체계다. 즉 우리사회에서는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아버지를 외면했을 경우, 후례자식 또는 상것이라는 소리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혈연인 가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이러한 우리社会의 가치체계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내담자가 현실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가 있었다.

둘째 사례

중년 부인이 다급하게 찾아와서 문의하는 내용은 본인이 잠시 외출한 사이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그러자 아버지가 꼭 당황해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딸이 얼른 베란다로 가서 엿들어보니 어느 여자와 통화를 하더라는 것이다. 잠시 후 아버지가 샤워를 하는 동안 딸들이 발신자 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해 젊은 여자 목소리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젊은 여자가 아무래도 수상쩍다고 딸로부터 전화로 통보를 받은 어머니는 당황한 나머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느냐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급히 상담자를 찾아왔다.

상담자는 그 부인에게 이럴 때 일수록 냉정을 찾아야 한다며 딸들에게 놀란 가슴을 다노출하지 말고, 그 여자는 엄마가 잘 아는 사람이라며 시치미를 떼면서 아버지에 대한 아이들의 의심과 놀라움을 덮어버리라고 했다. 그렇게 할 때 본인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배반이나 당하는 초라한 여인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피하게 되고, 한참 예민한 아이들도 아버지상이 일그러지지 않아야 혼란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며, 남편 또한 집안으로부터 더 이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했다. 만약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귄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딸들은 필경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는 점점 가정에서 곁돌게 되어 사태가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부인은 딸들이 이미

어느 정도 파악했는데 그렇게 둘러대는 말이 통하겠느냐며 난감해 했다. 그래서 상담자가 다시 말하기를, 설사 딸들이 미심쩍어 하더라도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는 어머니가 그렇게 밀고 나가면 더 이상 어찌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부연하기를, 그들이 다 컸을 때 그렇게 해서 중심을 잡고 난관을 이겨낸 어머니에게 고개 숙일 것이며, 또한 자신들도 유사한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어머니를 떠올리며 보다 성숙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히며 이런 사태에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균열을 막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이롭겠다는 식으로 사태에 대한 가닥을 잡았다. 일단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서 상담자는 다시 내담자에게 딸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아버지의 전화통화를 몰래 엿듣고, 아버지 몰래 발신자를 확인하고, 어머니에게 고자질하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자식의 행위를 문제 삼자 그 부인은 꼭 당황해하며 부끄러운 나머지 침통한 모습으로 자리를 떴다.

사례에 대한 해설

이 사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개인보다 가족내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우선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간주하기보다 우리라는 가정 내의 한 부분자로 여겨 개인의 사적영역을 허용하지 않고 침해라고 할 정도로 넘나들고 있다. 또 내담자인 부인도 남편의 실책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데 최선인지를 묻기 위해 상담자를 찾았다.

기존의 서구 상담이론에 입각해 이 사례를 상담한다면, 상담자는 남편에 대한 불신과 노

여움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느냐 하는 내담자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었으리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내담자가 정도 이상으로 힘들어하거나 부적절한 태도를 취한다면 내담자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취약점이 있었기에 그런 사태를 맞이해 그렇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 즉, 내담자 자신의 심리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역동상담의 관점에서는 이 사례를 일종의 위기상담으로 간주하고 상담자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흥분한 나머지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해주었다. 우선 상담자는 이 부인의 개인적 정서보다 가족 전체가 살고 있는 가정에 더 큰 혼란이 생기지 않게끔 방향을 잡았다. 그리하여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에 초점을 다루기보다 당면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일러주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굳이 부인에게 남편을 너그럽게 이해하라거나 아니면 대차게 따지도록 독려하지는 않았다. 그 어느 것도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애써 용서를 하고자 한다면 분노를 억압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자 남편과 다투다가는 자칫 아이들에게 아버지상을 박탈하게 된다. 분노 감정에 충실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절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도리어 남편을 감싸는 전략이 본인 자신을 비롯해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적극 일러주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딸들로부터 면 훗날 칭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까지 하여 내담자를 구슬렸다.

내담자의 흥분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사태에 대한 가닥을 잡아가자, 상담자는 내담자의

주의를 남편이 아닌 딸들에게 돌렸다. 즉 자녀교육을 어떻게 했기에 딸들의 태도가 그러 나는 식으로 부인을 자극시켰던 것이다.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부모나 자식은 각자의 역할이나 자리가 있게 마련이며, 그 자리에 걸 맞는 소임이 분명할 때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자는 바로 이런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며 내담자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아이들에 관한 자신의 문제에 주의를 돌리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자기도 살고 상대도 살릴 수 있는 원융적 차원에서 방안을 채택하도록 하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양육을 맡은 어머니로서의 어른역할에 대해 직면을 가했던 것이다. 남편에 대해 흥분보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던 부인은 남편이 그렇게 된 배경에는 자기가 뒤 늦게 공부를 한다며 만학도로서 가정에 소홀했던 탓 때문이라는 반성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내담자가 가정에 돌아가 남편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자,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해하며 가정에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부부의 금실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다고 알려주었다.

셋째 사례

어느 한 젊은 여성은 쓸쓸한 분위기에 젖어 있어 보인다는 지적을 집단상담에서 받았다. 결혼한 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왜 그러냐고 묻는 본 상담자의 말에 어렵게 성장한 남편이 아이 낳는 것을 썩 내려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남편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자 했고, 또 본인도 직장에서 자리를 구축하기 위해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자 co-leader인

상담자는 일반적으로 여성은 아이를 가짐으로써 더욱 성장하거나 당당해지 범인데, 어쩌자고 그렇게 쉽게 여성의 특권인 출산을 포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태도는 남편에 대한 내조도 아니고 나약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쓸쓸함도 그런 태도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직장에서 자리를 구축하느라 출산시기를 놓치면 뒤늦게 아무리 아이를 갖고 싶어도 불가능할 테니 정신 차리라고 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와 같은 상담자의 지적에 그 부인은 당황함을 보였지만 곧바로 수긍을 하며 도리어 시원해했다. 본인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일러준 상담자에게 그 부인은 고맙다는 말을 하며, 앞으로 남편이 무슨 말로 자기를 구슬리든 ‘이제는 기필코 자식을 낳아야겠다.’는 말을 하겠다는 부인은 단호하게 표현했다.

사례에 대한 해설

이 사례에서는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낳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담자가 짚은 내담자에게 적극 일러주었고, 내담자 역시 자기를 일깨워주는 그런 어른의 말을 기꺼이 수용했다.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여성의 특권이라는 말을 하면서까지 내담자를 일깨우는 태도에 대해 상담자가 자신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내담자에게 주입시키는 것이라고 비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른의 자세라고 본다. 우리사회에서 상담자는 부모 대열에 있는 어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사회에서의 상담자의 본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만약 내담자가 자녀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여성에게는 가임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자칫하다가는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마침 내담자는 불과 얼마 전에 다른 집단상담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남편의 뜻을 존중하며 따라주는 현숙한 여인으로 극찬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내담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적에 더욱 당황해 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집단상담에서는 내담자 자신의 선택이나 설명을 액면 그대로 존중해주는 즉, 그것이 옳든 그르든 내담자의 입장은 어떻게든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한 서구의 상담철학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역동 집단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사고방식이 우리사회의 상식과 크게 위배될 경우 상담자가 어른으로서 과감하게 지적을 하거나 직면을 시킨다. 마침 이해력이 빨랐던 내담자는 얼른 납득을 했다. 더 늦기 전에 자녀를 얻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남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윤용적인 사고를 내담자는 하게 된 것이다.

5박6일 동안의 집단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내담자는 남편에게 자식을 낳겠다고 강경하게 말을 했다고 한다. 아내가 그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자 남편은 더 이상 아내를 말리지 못했다. 그리하여 1년 뒤 아들을 출산한 그 부인은 두 선생님 덕분에 그 아들을 얻게 되었고, 남편 역시 막상 아들을 갖게 되자 매우 기뻐한다는 말을 감사인사와 함께 전해왔다. 그리고 몇 년 뒤 딸까지 출산한 그 부인의 모습에는 전에 보였던 쓸쓸한 모습은 흔적도 없고 일반 아줌마들이 갖는 억척스러움이 호쾌하게 번져 나왔다.

일찍이 산업화를 이룩한 서양은 자율성 내지는 독립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사상을 발달시켰고, 이러한 문화에서 서양의 상담접근은 개인내적인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자아성장 내지는 자아실현을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가족주의를 근간으로 제반 문화를 발달시켰던 우리사회는 현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름대로의 강한 가족주의적 색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담목표는 조화를 이룬 인간관계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상담자 역할은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 속에서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상담자는 적극 어른의 노릇을 하며 내담자를 일깨워주고자 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작업이 내면의 심리역동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생활에 필요한 조언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내담자의 주요 역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또 내담자의 분노를 다루어주지 않고서는 상담자의 말을 수용되거나 소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주의 문화권에서는 상담자가 심리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현실의 문제를 상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또는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어줄 때 만족할만한 상담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담자의 적응을 돋고자 한다면 나와 상대를 아우르는 일체적 관점이 유용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가족주의에 입각한 일체적 관점은 상담의 토착화를 이루하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 권명아 (2000). 가족 이야기, 그 역사적 형식에 관하여: 김원일의 ‘가족’을 중심으로. *동서문학*, 248-261.
- 김은희 (2005). 문화적 관념체로서의 가족: 한국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27, 183-214.
- 김태길 (2002). 한국 가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철학과 현실*, 55, 30-41.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안호용 (2001). 현실의 가족과 생각 속의 가족: 한국 가족사의 탐색. *한국 가족상의 변화*, 하용출 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온기수 (2006).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성별 및 세대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8(3), 1-31.
- 이동희 (1997). 유교 전통과 21세기 한국의 ‘민족문화’ 문제 - 한국적 가족제도와 그 문화를 중심으로 -. *유교사상연구*, 11, 101-127.
- 이성용 (2006). 가족주의와 효. *한국인구학*, 29, 215-240.
- 이승환 (2004). 한국 ‘가족주의’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변화 가능성. *유교사상연구*, 20, 45-66.
- 이재경 (1999).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가족의 근대적 변형, *한국여성학* 15(2), 55-86.
- 이현지 (2005). 한국사회의 가족문화의 실태와 새로운 가족문화에 대한 모색. *한국학논문집*, 32, 421-450.

- 장성숙 (2000). 현실역동상담: 한국인의 특성에 적합한 상담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7-32.
- 장성숙 (2002). 우리 문화에서의 상담자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47-561.
- 장성숙 (2004). 한국문화에서 상담자의 초점: '개인중심' 또는 '역할중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5-27.
- 최봉영 (1998). '사회' 개념에 전제된 개척과 전체의 관계와 유형. *동양사회사상*, 1, 79-104.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최인재, 김기범 (1999). 정, 최면민감성과 스트레스, 문제대응방식 간의 관계.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회*.
- 최상진, 진승범 (1995). 한국인의 눈치의 심리적 표상체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511-521.
- 최영진 (2005). 한국사회의 유교적 전통과 가족주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철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철학의 눈으로 한국의 오늘을 본다: 한국적 문화현상」.
- 최홍기 (2006). *한국 가족 및 친족제도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개정판)*. 서울: 학지사.
- 한성열 (2005). 한국인의 문화 특수성: 가족관계로 본 한국 문화의 특성. *한국 문화의 특성과 상담*.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제5회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21-30.
- 함인희 (2001). *한국가족사의 이해*. 하용출 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Caldwell, J. C. (1982). *Theory of fertility decline*. New York: Academic Press.
- Inglehart, R. (1997). *Mor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ofstede, G. (1991). *Culture and organization: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 Hills.
- 나은영 · 차재호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원고 접수일 : 2007. 4. 3

수정원고접수일 : 2007. 8. 8

게재 결정일 : 2007. 8. 16

The Familism and a View of Integration for Reality Dynamic Counseling

Sung-sook Cha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familism which has been influenced by Confucianism is the most representative among national traits of Korea. Nowadays Korean society has a lot of conflicts between the traditional familism and the Western individualism. Although our society seems to be externally westernized, it still has inveterate values of the familism. The familism is keynote of Korean cultures and has a powerful merit like co-operative spirit even though it has a lot of evils. And also it could really make for formation of new culture of our familism, if it is harmonized with individualism. A view of integration for familism and individualism which embraces ‘me’ and ‘we(Uri)’ is proposed in this study to overcome the various conflicts of family relationships in Korea. Such a point of view regards an individual as a part of a family, not as a separate being from family. This study introduces Reality Dynamic Counseling as an approach for Koreans and illustrates how does counseling with such a point of view in real counseling cases.

Key words : familism, individualism, co-operation spirit, point of view for integration, Reality Dynamic Counseling